

전문가의 눈 사로잡은 이 작품을 주목하라

- ▶ 케이 소피 - 황지영 화장실 사진 연작 '미소방'
- ▶ 친 타오 우 - 케리 제임스 마샬 '리듬 마스터'
- ▶ 아트 인 아메리카 - 모나 마주크 '발가벗은 신부'
- ▶ 프랑스 르 몽드 -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에는 실현성 강한 작품이 대거 출품돼 어떤 작품을 관심 있게 감상해야 할지 어리둥절 할 때가 많다. 이럴 땐 국내외 미술 전문가들의 '심미안'을 빌려 작품 감상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관람 요령이다.

개막 13일째를 맞은 18일 현재, 올해 광주비엔날레에는 케이 소피(Cay Sophie) 전 스위스 바젤 아트 페어 감독 등 내로라하는 세계 미술계의 거장 30여명과 '아트 인 아메리카' 등 해외 언론사 기자 40여명이 다녀갔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작가와 작품을 눈여겨봤을까? 케이 소피는 비엔날레 제3전시관에 소개된 광주지역 작가 황지영씨의 사진 연작 '미소방'을 꼽았다. 케이 소피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라는 대중적이고, 자연적이면서, 기능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극찬하며, "미소방"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화장, 물레방아 등을 묘사해 후발 산업국가

의 단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중국 미술평론가 친 타오 우(chin tao wu)는 케리 제임스 마샬(미국)의 '리듬 마스터'(비엔날레 제1전시관)를 추천했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가 보여주는 미국 내 흑인 문화를 잘 소화한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리듬 마스터'는 미국 흑인 동네의 집과 네온사인 등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며, 인권 문제를 주제로 담았다. 그는 중국 언론에 케리 제임스 마샬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광주비엔날레의 작품 설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트 인 아메리카'의 엘레노 하트니(Eleanor Heartney) 기자는 요하인 손켈트(남아프리카 공화국)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제3세계 작가들에 주목했다. 엘레노 하트니는 "세계 미술계의 흐름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현상이 바로 광주비엔날레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모나 마주크(이집트)의 대형 벽화 작품인 '발가벗은 신부'(제2전시

관), 시슬레이 자파의 '칼린'(제3전시관) 등의 작품에 의미를 부여했다. 코리아 타임스의 캐시 로스(cathy ros) 기자는 지난 5일자로 게재된 기사에서 브루스 요네모토(미국)의 사진 작품인 '무제'(제4전시관)와 김성환의 영상작품 '개 비디오'(제2전시관)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 밖에 르 몽드(le monde)의 지니비브 브레리테 기자는 대인시장에서 펼쳐지는 '복덕방 프로젝트'에 대해 "사랑스러운 전시와 작품"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광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시장)에서 광주라는 지역성이 듬뿍 담긴 작품이 전시됐다는 것이다. 또 안양 석수시장의 대안 예술공간인 '스톤 앤 유티'의 박찬을 대표는 조동환·조해준 부자의 드로잉과 조소가 결합된 작품인 '미군과 아버지'(비엔날레 제2전시관) 등의 연작을 강력 추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엔날레 제3전시관에 전시된 광주 작가 황지영씨의 사진 연작 '미소방'.

옛 전남도청 철거 반대 퍼포먼스

보존대책위, 20일 옛 도청 앞

'다양한 몸짓과 설치 작품으로 도청 철거를 반대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철거되는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보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열린다. 옛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7시 옛 전남도청앞 특별무대에서 '국제 퍼포먼스 아트-2008 빛과 생명'을 개최한다. 아트프로젝트 움, 창작공간 난쟁이 등이 진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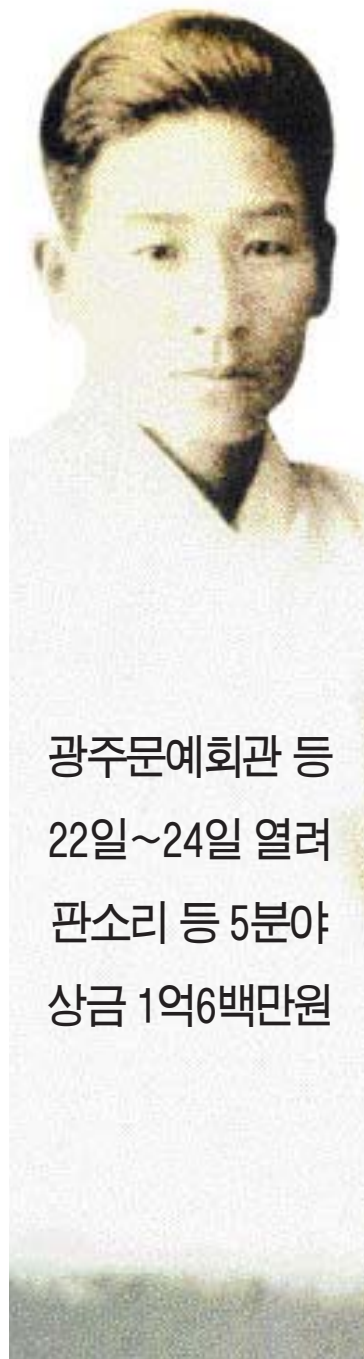
는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행위미술작가인 김광철씨가 '종이를 느끼다', 섬유설치미술가인 오영정씨가 '기억의 타인을 본다'를 공연한다. 또 김지희씨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해방'을 무대에 올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콜롬비아 인디오 출신으로 도발적이고 주술적인 퍼포먼스와 설치 작품을 통해 콜롬비아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호르헤 히달고의 퍼포먼스 '슬픈 신체'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5-0518. /김미은기자 mekim@

김동리·박목월 기리는 상금 1억 '문학상' 제정

소설가 김동리(1913-1995)와 시인 박목월(1916-1978)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문학상이 나란히 제정된다. 경주시와 사단법인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지원을 받아 총 상금 1억원의 동리·목월문학상을 각각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동리선생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이미 11회째를 맞는 소설 문학상인 기존의 김동리문학상을 흡수하고, 시 문학상인 목월문학상을 신설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제 16회 전국 임방울 국악제 열린다

오정해 전아제 사회 안숙선 사랑가 공연



광주문예회관 등 22일~24일 열려 판소리 등 5분야 상금 1억6백만원

광주 출신 명창 임방울 선생(1905~1961)은 한국의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9살 때 서당에서 귀동냥으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12살 때 광창식 선생에게 판소리를 배우며 본격적인 소리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동일창극단을 창립하고 '수궁가', '적벽가' 등을 완창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 그는 특히 1936년 발매된 '쑥대머리' 공연 앨범이 우리나라와 일본, 만주 등지에서 120만장이 팔려나가며 최고의 소리꾼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임방울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제 16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포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경연대회와 전아제, 판소리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국악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경연대회는 22일 학생부 예선을 시작으로 3일간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판소리, 시조, 농악, 기악, 무용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최고상인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상금 1천 500만원과 임방울 트로피(순금 60돈)가 수여된다. 총 상금 규모는 1억 600만원으로 국내 국악대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2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에서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씨의 사



회로 전아제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숙선(종묘무형문화재 제23호 예능보유자) 명창이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를 들려주며 김일구씨가 아쟁 병창 '추억'을 선사한다. 또 중앙가야금병창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비보이, 타악그룹 열두의 퓨전 타악 공연, 새울전통타악이 숲다 등이 출연하며 지난해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춘맹씨의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판소리를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은 22일 오전10시부터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임방울 선생이 즐겨 불렀던 '춘향가' 중 '쑥대머리'와 '호남가', '추억' 중 한곡을 부르면 된다. 금상에 50만원이 수여되는 등 모두 46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한편 24일 본선 경연전에는 광주문예회관에 위치한 임방울 선생 동상 앞에서 국악 임방울 예술혼을 모시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임방울 추모 살풀이굿을 시작으로 길닦음, 집단 지진춤 등으로 구성된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역에 갤러리 오픈

'지역 문화 예술의 창' 개관 기념전

"기차를 기다리면서 예술의 향기도 만끽하세요" 광주역에 '갤러리'가 들어섰다. 코레일 광주지사(지사장 백종찬)는 18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광주역 2층(130㎡) 공간을 리모델링 해 '광주역 갤러리'를 오픈했다. 기차역에 갤러리가 들어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곳은 그동안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됐는데, 승객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문화 수도 광주의 관문인 광주역 갤러리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지역작가들을 소개하고, 남도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코레일 광주지사는 광주미술협회(회장 정광주)와 함께 이날부터 오는 10월23일까지 '지역 문화 예술의 창'을 주제로 개관 기념전도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고영준, 김영화, 김해성, 박동신, 박주하, 백현호, 이정경, 이혜경, 정경춘, 조광섭, 황순철 등 광주미술 소속 중견작가 34명이 참여한다. 또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들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8일 광주역 2층에 문을 연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이 개관 기념전을 감상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미술 작품 감상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설명회도 함께 열린다. 백종찬 지사장은 "광주역 갤러리를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 무료 개방해 창작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돼 광주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황토사랑 영화사랑	색깔있는 영화선학	고려시영 고대김동	새로운 기쁨
메가박스 구.관전역국사거리 ♡에메1544-0600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앞) 아이티(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스트 ☎ 267-7777	제 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800
<p>1관 신기전 (15세) 최고등급</p> <p>2관 20세기소년 (12세)</p> <p>3관 황시 (12세)</p> <p>4관 미러 (18세)</p> <p>5관 영화는 영화다 (18세)</p> <p>6관 외몰이 (15세)</p> <p>7관 꽃보다 남자(12세)/영화는 영화다(18세)</p> <p>8관 울학교 이티(15세)/빙콕 데인저러스(15세)</p> <p>9관 맘마미아 (12세)</p> <p>•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멤버 클럽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p>	<p>1관 신기전 (15세)</p> <p>2관 미러 (18세)</p> <p>3관 울학교 이티 (15세)</p> <p>4관 외몰이 (15세)</p> <p>5관 20세기 소년(12세)/영화는 영화다(18세)</p> <p>6관 지구(대)빙(전제)/빙콕 데인저러스(15세)</p> <p>7관 스타워즈(전제)/맘마미아(12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북구역 주차장 300대 • 금로 실버상영</p>	<p>1관 울학교 이티 (15세)</p> <p>2관 지구(대)빙(전제)/빙콕 데인저러스(15세)</p> <p>3관 영화는 영화다 (18세)</p> <p>4관 황시 (12세)</p> <p>5관 케로로 더무비(대)빙(전제)/외몰이 (15세)</p> <p>6관 맘마미아(12세)/꽃보다 남자 (12세)</p> <p>7관 맘마미아 (12세)</p> <p>8관 미러 (18세)</p> <p>9관 신기전 (15세)</p> <p>10관 신기전 (15세)</p> <p>•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잡채리 상영중</p>	<p>1관 미러 (18세)</p> <p>2관 신기전 (15세)/울학교 이티 (15세)</p> <p>3관 황시 (12세)</p> <p>4관 외몰이 (15세)</p> <p>5관 영화는 영화다 (18세)</p> <p>6관 맘마미아 (12세)</p> <p>7관 신기전 (15세)</p> <p>•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권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역 사무원(오전8시~오후11시)</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1관 지구 (전제)/꽃보다 남자 (12세)</p> <p>2관 빙콕 데인저러스 (15세)</p> <p>3관 다크나이트 (15세)/20세기 소년 (12세)</p> <p>4관 영화는 영화다 (18세)</p> <p>5관 미러 (18세)</p> <p>6관 울학교 이티 (15세)</p> <p>7관 황시 (12세)</p> <p>8관 신기전 (15세)</p> <p>9관 맘마미아 (12세)</p> <p>10관 신기전 (15세)</p> <p>•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85 매일실사 • 이동권신사 & OK 캐쉬카드 할인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불꽃장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p>	<p>1관 신기전 (15세)</p> <p>2관 미러 (18세)</p> <p>3관 맘마미아 (12세)</p> <p>4관 영화는 영화다 (18세)</p> <p>5관 울학교이티 (15세)</p> <p>6관 꽃보다 남자(12세)/20세기 소년(12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세무서앞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227-1960</p>